

불어에서의 적정 지배와 schwa

(3중 자음 연쇄를 중심으로)

장 재 성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이 논문에서는 지배 음운론(*phonologie du gouvernement*)의 이론적 틀 안에서 “불어의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 (*Structure interne de la séquence des segments consonantiques du français*)에서 살펴본 이중 자음 연쇄(*séquence de deux segments consonantiques*)의 내부구조(*structure interne*)를 다중 자음 연쇄에 확장시켜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 이중 자음 연쇄에서의 우리의 논의가 다중 구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방법론적인 해결을 위해 지배 음운론의 원리(*principe*)¹⁾들을 이러한 불어의 음운론적 현상에 비추어 재검토해 보고 불어의 음운론적 특성을 결정짓는 *paramètre*²⁾ 들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불어의 3중 자음 연쇄³⁾는 지배 음운론의 원리들이 적용 우선순위를 겨루는 중요한 음운론적 영역(*domaine phonologique*)이다. 우리가 2중 자음 연쇄에서 논의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분석을 요한다

적정 지배(*Proper Government*)와 *schwa*와의 상관관계가 이곳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적정지배와 지배용인(*Government Licensing*)과의 상관관계 역시 이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양 상관관계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다중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따라서 양쪽 중에서 하나의 상관관계가 선택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I

불어에서 3자음 *segment*들이 형태소 경계없이 연속될 경우 2자음 연쇄와는 달리⁴⁾ 어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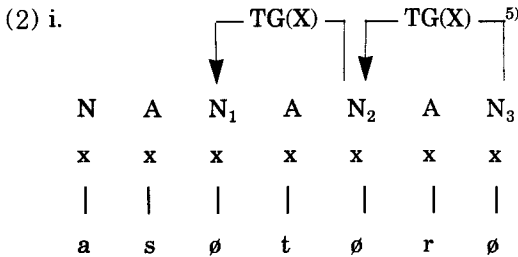
-
- 1) 이 글은 “불어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와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지배 음운론에서 쓰이는 원리들의 정의와 설명은 이미 그 곳에서 모두 나왔으므로 다시 원리들에 대한 설명은 되풀이하지 않겠다.
 - 2) *principe*가 모든 언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paramètre*는 각 언어의 독특하고도 고유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sous-principe*의 역할을 하게 된다.
 - 3) 불어에서는 3중 자음 연쇄 뿐만이 아니라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는 한 단어 내에서 4중 자음 연쇄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형태소 경계가 없는 단어에서는 3중 자음 연쇄까지만 가능하다.
 - 4) 장 재성(1994), “불어의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 참조.

를 포함한 한 단어 내의 모든 위치에서 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우선 3중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를 살펴보자.

- (1) i. **astre** [astr]
ministre [ministr]
 ii. **gastrique** [gastrik]
castrat [kastra]
 iii. **strict** [strikt]
spleen [splin]

(1)-i의 예들은 3중 자음 연쇄가 어말에서 형성된 경우이고 (1)-ii의 예들은 어중에서, (1)-iii의 예들은 어두에서 형성된 경우들이다. 이들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의 강도는 각각 다르다. 이들의 내부구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중 자음 연쇄에서 결정 지은 구조를 3중 자음 연쇄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된다

astre의 예부터 살펴보자.



(2)-i의 구조는 **str**의 연쇄에서 **attaque branchante**와 **Coda Licensing Principle**⁶⁾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의 자음 segment 사이에 빈 핵(**noyau vide**)을 상정한 것이다.

이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핵 N₂가 용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어말 빈 핵(**noyau vide final**)⁷⁾ N₃가 용인(**autorisé**)된 핵이므로 자연히 앞에 놓인 N₂를 적정지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N₂는 앞에 놓인 핵 N₁으로부터 적정지배 받을 수 밖에 없는데 N₁마저 비어 있으므로 N₂를 적정지배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분간 위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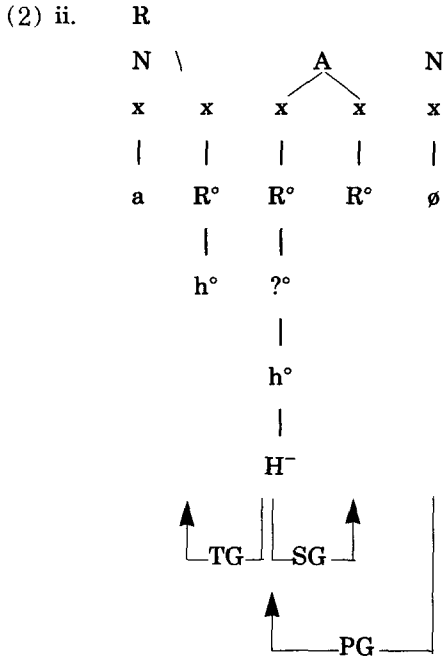
5) X는 불가능함을 나타냄

6) **attaque branchante**는 **gouvernement syllabique**를, **Coda Licensing Principle**은 **gouvernement transsyllabique**를 의미한다

7) 붙어는 **domain final empty nuclear**를 허용하는 언어이다.

조를 3중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로 설정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하자.

str의 연쇄 사이에서 일체의 지배관계를 인정하지 않은⁸⁾ (2)-i의 구조가 3중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로 결합이 있다면, 이들 사이에서 지배관계를 허용하는 구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ii는 지배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str 연쇄의 각각의 자음 segment들을 élément으로 표시해 놓았다.

(2)-ii에서 segment t는 segment r과 gouvernement syllabique관계에 놓이므로 이 두 segment는 attaque branchante를 이루게 된다. 또한 다른 편으로 이 segment t는 앞의 segment s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Coda licensing principle에 의해 이 두 segment는 gouvernement transsyllabique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str 연쇄 내부에서 두 지배관계가 동시에 형성되게 되는데 물론 이러한 지배관계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segment t가 뒤에 놓인 모음 segment, 여기에서는 어말 빈 핵에 의해 지배용인을 받아야한다. (2)-ii에서는 어말 빈 핵이 과연 이 두 지배관계를 동시에 용인해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외한다면⁹⁾ 구조상 아무런 결합을 갖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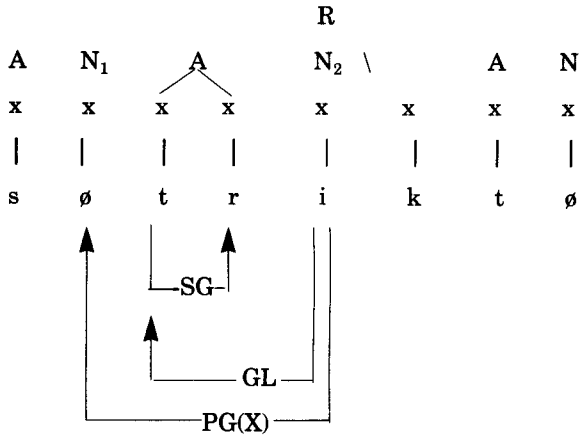
8) 주3) 참조

9) 우리는 act, strict 등에서 어말 빈 핵이 gouvernement transsyllabique를 용인해 줄 수 있음을 보았다

(2)-ii의 문제는 자체 내부에서가 아니라 **str**의 연쇄가 (1)-iii에서처럼 어두에서 놓일 때 (2)-ii의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1)-iii의 **strict**의 내부구조를 살펴보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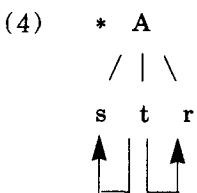


str의 내부구조를 (3)과 같이 생각할 때 우선 **segment t**는 **segment r**보다 **élément**의 수가 많고 **charme négative**를 갖고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gouvernement syllabique**가 형성이 되어 **attaque branchante**를 이룬다. 이때 물론 뒤에 오는 핵 **N₂** **i**로부터 지배용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segment t**와 **r**사이의 지배관계는 **N₁**과 **N₂** 사이에 존재하게 되므로 **N₂**가 빈 핵 **N₁**을 적정지배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그것은 적정지배가 가능한 조건 중의 하나가 양핵 사이에 어떠한 지배관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N₁**은 그 앞에 어떠한 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부터의 적정지배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3)의 구조는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str** 연쇄의 내부구조로 생각할 수가 없다.

또한 (2)-i에서와 같이 연쇄 내에서 모든 지배관계를 허용치 않는 구조도 아직까지의 논의의 결과로는 (2)-i에서와 같은 이유로 배제된다.

물론 **attaque branchante**는 지배의 방향성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양분구조 이상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str 연쇄에 대한 내부구조의 결정은 다른 3중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를 살펴본 이후로 미루기로 하겠다.

II

불어에서는 다른 언어에서 보다 비교적 자음 segment들의 연쇄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영어와 비교해보면 영어에서 3중 자음이 허용되는 경우는 연쇄의 첫 segment가 s인 경우에 한정된다. 그것도 어두나 어중에서만 가능하고 어말에서는 용납이 안된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3중 자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이 되질 않으며 2중 자음 연쇄도 어중에서만 가능해¹⁰⁾ 영어보다 더욱 제약이 심하다. 일본어의 경우는 우리나라 말보다 더욱 제약이 심해서 어중에서 gémin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연쇄를 용납하지 않는다.

즉 불어에서는 자연스러운 (1)-i의 예들이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어, 영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불어는 3중 자음 연쇄의 허용 폭이 다른 언어보다 넓다고 할 수 있겠다.¹¹⁾

이제 (1)의 예에서와는 달리 3중 자음의 첫 segment가 s가 아닌 연쇄를 살펴보기로 하자.¹²⁾

- (5) poltron [pɔltʁɔ̃]
- arbre [ɑʁbʁ]
- surpris [syʁpʁi]

(5)의 예에서 보듯이 3중 자음 연쇄가 첫 자음 segment가 s가 아닌 경우 어두에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형태소 경계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 때도 연쇄의 첫 segment는 언제나 élément을 단 하나만 가지고 있는 segment r 뿐이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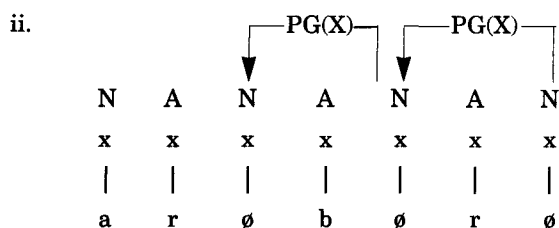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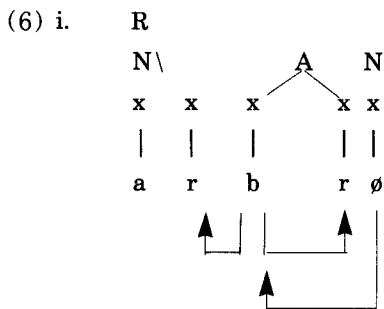
연쇄가 어말에서 형성된 arbre의 경우를 살펴보자.

10) 우리나라 말의 경우 역사적으로는 어두에서도 2중 자음 연쇄가 가능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어말에서는 어떠한 시대와 지방을 막론하고 2중 자음 연쇄가 불가능했다.

11) 체코어에서는 형태소 경계없이 어두에서 4중 자음 연쇄까지 가능하다.

12) 여기서도 연쇄 내부에 형태소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논의를 뒤로 미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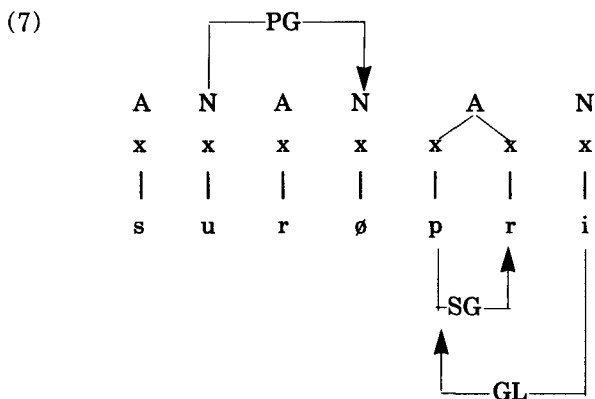
13) V 장 참조



(6)-i, ii에서의 내부구조도 (2)-i, ii에서 본 것과 같은 문제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1)과 (5)의 예들(str, skr, spl etc. et ltr, rbr, rpr etc.)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3중 자음 연쇄의 첫번째 segment와 마지막 segment가 모두 élément의 수가 두 개 이하인 segment 뿐이라는 것이다. 형태소 경계없이 위의 예들 이외의 3중 자음 연쇄는 불어에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3중 자음 연쇄가 어중에서 형성된 경우에는 3중 자음 연쇄 뒤에 필연적으로 빈 핵이 아닌 실제의 모음 segment를 가지고 있는 핵이 따르게 되므로 (6)-i, ii 외에 절충형으로서 *gouvernement transsyllabique*는 인정하되 *gouvernement syllabique* 만을 인정하지 않은 (7)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surpris*의 예를 들어보자



(7)의 구조는 3중 연쇄의 내부에 빈 핵을 하나만 인정한 것이다 이 빈 핵은 앞의 모음 segment로부터 적정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segment p와 r의 gouvernement syllabique관계는 어말의 모음 segment로부터 지배 용인을 받을 수 있다 (7)의 형태는 (6)-i과 (6)-ii의 중간형태로서 surpris의 내부구조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어말의 실 핵이 gouvernement syllabique는 용인할 수 있으면서 같은 segment p의 gouvernement transsyllabique는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빈 핵인 경우는 그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 핵인 경우 과연 (7)과 같이 한쪽만을 용인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답을 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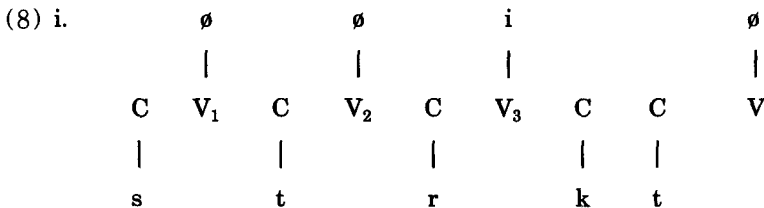
또한 여전히 segment p와 r 사이에 진정한 지배관계의 징후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III

지금까지 불어에서 가능한 3중 자음 연쇄가 공통적으로 갖는 내부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3중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를 확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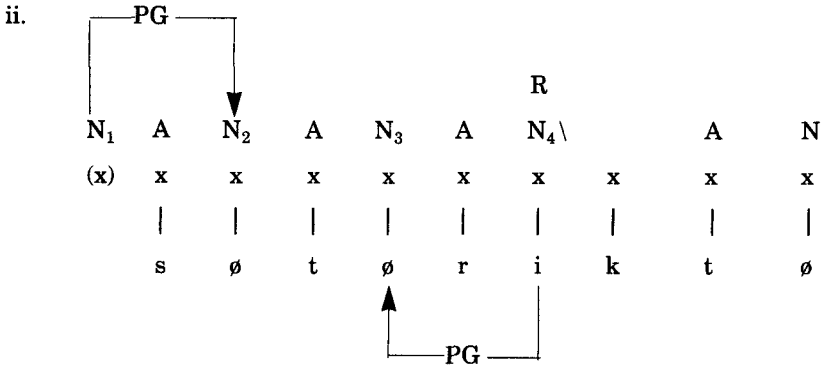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는 자음 연쇄내에서 élément의 상실 등 특별한 음절적 지배관계의 징후가 없는 한 그 사이에 빈 핵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이끌어 왔다. 그렇다면 3중 자음 연쇄가 어두에 놓일 때 두번째 빈 핵은 자연스럽게 뒤에 오는 실 핵으로부터 적정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적정 지배를 해줄 수 있는 가능 지배자를 갖을 수 없는 첫번째 빈 핵은 어떻게 용인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해결해야 한다.

어두에 3중 자음 연쇄가 오는 경우를 다시보자.



(8)-i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V₁의 존재가 어떻게 용인받을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V₂는 V₃로부터 적정 지배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두에 3중 자음 연쇄가 오는 경우는 그 첫 segment가 반드시 segment s이므로 우리는 (8)-i의 구조를 (8)-ii로 보고자 한다.



(8)-ii의 구조는 **segment s** 앞에 가상의 핵을 상징한 것이다. 이 가상의 핵 N₁이 존재한다면 N₂는 이 N₁으로부터 적정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가상의 핵은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두 3중 자음 연쇄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어두 3중 자음 연쇄는 자체내에 연쇄의 첫 **segment**가 **s**라는 아주 강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히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로망어에서는 어두 3중 자음 연쇄를 깨기 위해 이 연쇄 앞에 모음 **segment i**를 첨가했다. 불어에서는 이 첨가된 **segment i**가 탈락하든지 아니면 모음 하강작용을 일으켜서 **segment e**로 변해서 남기도 했다.¹⁴⁾

(8)-ii의 구조는 **ad hoc** 한 성격을 갖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두 3중 자음 연쇄에서 첫번째 빈 핵을 용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8)-ii를 어두 3중 자음 연쇄의 구조로 받아들인다면 어중 3중 자음 연쇄의 구조는 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는다. (6)-ii에서 어말 3중 자음 연쇄의 두번째 빈 핵이 용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은 역으로 이 둘이 **attaque branchante**를 이룬다는 증거로도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이 둘이 **gouvernement syllabique**에 놓인다고 보는 것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한다.

IV

이제 형식상 3중 자음 연쇄를 이루는 구조에서 적정 지배와 **schwa**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4) espace, estrade의 **segment e**는 모두 원래의 **segment i**가 하강작용을 일으켜서 변질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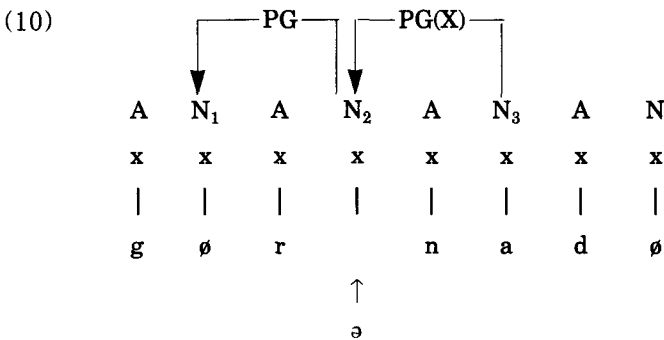
불어에서는 자음 segment가 연속되면서 모음 segment가 삽입이 되지 않을 경우 자음 연쇄를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schwa가 삽입되게 된다. 이때 schwa가 삽입되는 것은 적정 지배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적정 지배와 schwa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연쇄 내에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경우 적정 지배와 지배용인과의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그것은 이 경우에 두 원리는 상호 배타적이 되어서 반드시 출혈적 관계¹⁵⁾ 혹은 모순적 관계가 성립이 된다. 또한 이 두 원리의 적용 관계는 언제나 schwa를 통해서 표현되게 된다.

우선 한 단어 내에서 적정 지배와 schwa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 (9) i. **grenade**[grɛnɔd]
 - crever**[krɛvɛ]
 - fredonner**[frɛdɔnɔn]
- ii. **.bergerie**[bɛʁʒɛʁi]
 - quarteron**[kɑʁtɛʁɔ̃]
 - forgerons**[fɔʁʒɛʁɔ̃]

(9)-i은 어두에서 양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9)-ii는 어중에서 형성이 되었다.¹⁶⁾
 (9)-i의 **grenade**의 예를 살펴보자.



(10)에서 먼저 N₃는 N₂를 적정 지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핵 사이에서는 적정 지배가 일어나지 않고 그 대신에 schwa가 삽입되게 된다. 그리고 이 삽입된 schwa는 그 앞의

15) 음운론적 규칙이 존재한다고 할 때 두 규칙 사이에서 한 규칙이 다른 규칙의 적용을 막을 때와 아주 흡사하다.
 16) 적정 지배와 schwa와의 관계는 반드시 연쇄 뒤에 적정 지배를 할 수 있는 지배자 즉 실 핵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지배자가 존재할 수 없는 어말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빈 핵 N_1 을 적정 지배함으로써 어두 3중 자음 연쇄에서의 첫번째 빈 핵을 용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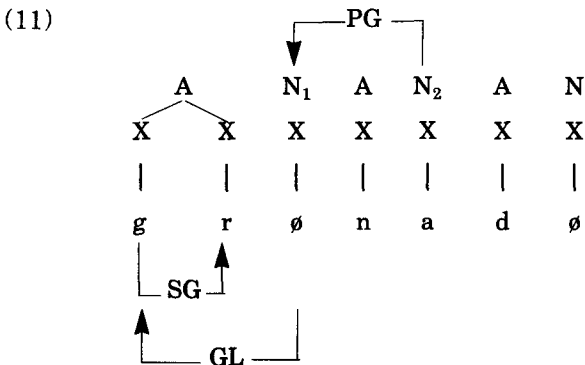
이 경우에 N_2 가 N_3 로부터 용인을 받아 빈 핵으로 남고 그대신 N_1 에 schwa가 삽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실제의 음운 현상과 배치되므로 배제된다¹⁷⁾

이 때 만약 N_2 가 적정 지배를 받아 용인된다고 가정하면 segment g와 r 사이에 schwa가 삽입되기보다는 segment g와 r중에서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붙어는 [grnad]라는 발음 형태보다는 [gnad]나 [rnad]의 형태 중 하나를 취했으리라 생각되나 이 두 형태 모두 불어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10)에서 N_2 의 용인 가능성은 배제된다

그렇다면 N_2 에 삽입되는 모음 segment가 왜 반드시 schwa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schwa는 불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불어는 어말 빈 핵을 허용하는 언어이지만 이 어말 빈 핵 하나만으로 하나의 단어를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때에 어말 빈 핵 자리에 schwa가 삽입되는데¹⁸⁾ 이 schwa는 삽입될 뿐이지 음운론적 영역의 tête¹⁹⁾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불어에서 어떠한 다음절어(mot polysyllabique)도 핵이 오직 schwa로만 구성된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모음과 달리 schwa는 그 하나만으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로써 입증된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의 음운론적 영역 안에 tête의 가능성이 있는 모음 segment 보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schwa가 삽입 모음으로서는 적격으로 여겨진다. 또한 (10)에서 어두의 segment g와 r 사이에 schwa가 삽입될 수 없음은 이 두 segment 사이에 gouvernement syllabique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경우에는 바로 적정 지배와 지배용인과의 적용 우선 순위의 문제가 된다.



17) 각각의 핵 사이에 형태소 경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N_2 보다 N_1 에 schwa가 삽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실 핵과 인접한 핵이 용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18) de, se, le etc. 같은 예들.

19) Kaye, Jonathan(199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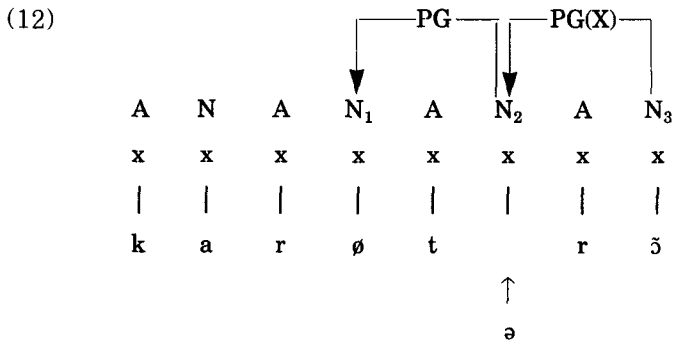
grenade의 내부구조를 (11)과 같이 본다면 필연적으로 적정 지배와 지배 용인 사이에 출혈적 관계가 형성된다. 즉 N₂는 N₁의 적정 지배자로서의 위치에 있으나 실제로는 적정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N₁에 schwa가 삽입이 됨으로써 이 schwa가 앞에 있는 *attaque branchante*를 용인하게 된다. 따라서 어두 자음 연쇄의 *gouvernement syllabique*를 용인하기 위해 적정 지배가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서도 적정 지배가 적용이 되어 지배용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에 N₁은 당연히 빈 핵으로서 용인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어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grn의 연쇄가 생성되어 이 구조를 깨기 위해 앞의 두 자음 segment 중에 하나가 탈락해서(10)의 가정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gnad] 혹은 [rnad])

만약 이러한 단어가 불어에 존재한다면 앞의 두 segment 중 하나가 탈락하여 2중 자음 연쇄가 된 두 자음 segment 사이에 아마도 자연스럽게 schwa가 다시 삽입될 수가 있어서 [g(ə)nad] 혹은 [r(ə)nad]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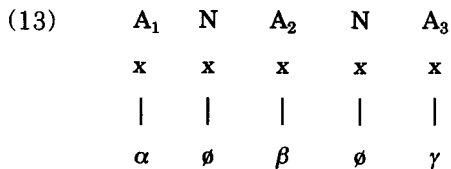
그러나 (11)의 분석은 많은 결함을 안게 된다.

(9)-ii의 quarteron의 예를 살펴보자.



(12)의 예는 지금까지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로서 우리가 연쇄 내부에 특별한 지배의 징후가 없는 한 자음 연쇄의 구조를 *pseudo-séquence*²⁰⁾로 규정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귀한 예이다.

지금까지 자음 연쇄의 내부구조로 논의한 형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0) Kaye, Jonathan(1992) 참조.

(13)에서 A_1 , A_2 , A_3 는 표면 형태에서는 인접해 있지만 내부 구조상으로 볼 때는 빈 핵에 의해 떨어져 있는 것이다. Kaye(1992)는 이러한 구조를 **pseudo-cluster(pseudo-séquence)**라고 불렀다.

(12)는 바로 (13)의 구조이다. 다만 (12)에서 실 핵 N_3 가 N_2 를 적정 지배하여 용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지배는 성립하지 않고 N_2 에 schwa가 삽입이 됨으로써 이 schwa가 앞의 N_1 을 적정 지배하여 빈 핵을 용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tr 연쇄 사이에 schwa가 삽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쇄가 결코 지배관계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이 예가 말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attaque branchante**의 구조로 보아온 tr 연쇄 사이에 schwa가 삽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tr과 같은 연쇄 모두가 **attaque branchante**가 아니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이 논의는 아직도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V

지금까지는 형태소 경계가 없는 경우였지만 이 장에서는 형태소 경계가 있거나 2개 이상의 **morphème**이 연속될 때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14) i.	reprendre	[<u>r(ə)prɑ̃dr</u>]
	retrait	[<u>r(ə)trɛ</u>]
ii.	restrictif	[<u>rɛstryktyrɛ</u>]
	restrictif	[<u>rɛstriktif</u>]
iii.	adstra	[<u>adstrɑ</u>]
	substrat	[<u>supstrɑ</u>]
iv.	chaudemant	[<u>ʃodmɑ̃</u>]
	autrement	[<u>otrɑmɑ̃</u>]

(14)-i은 3중 연쇄 내부에 schwa가 임의로 삽입될 수 있는 경우이고 (14)-ii는 schwa가 반드시 삽입되는 경우이다. (14)-iii은 schwa의 삽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중 4중 자음 연쇄가 이루어진 흔치 않은 경우이다. (14)-iv는 (14)-i, ii, iii의 예들이 접두어에 의해 형태소 경계가 나뉘는데 반해 접미사에 의해 경계가 나뉘는 예들이다.

(14)-i의 **reprendre**는 실제로는 두 개의 **morphème**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5) i.	$\sqrt{[re]}$ + $\sqrt{[prendre]}$
---------	------------------------------------

이 삽입 모습들은 모두 뒤에 오는 형태소의 어두에 형성된 3중 자음 연쇄의 첫번째 빈 핵을 적정 지배함으로써 그것을 용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16)-i은 Kaye가 *analytic morphology*라고 부른 형태에 속하고 반면에 (16)-ii는 *nonanalytic morphology*로 부른 형태에 속한다 즉 전자는 내부구조에 내부영역(*domaine interne*)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이것이 없다는 것이다.

양자는 같이 2개의 *morphème*에서 출발했으나 후자는 형태소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Kaye의 *nonanalytic*이란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이다

(14)-iii은 불어에서 몇 안되는 극히 드문 4중 자음 연쇄의 예들인데 두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서만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중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쇄의 첫 자음 *segment*들은 *élément*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약화된 *segment*들이다.

*substrat*의 내부구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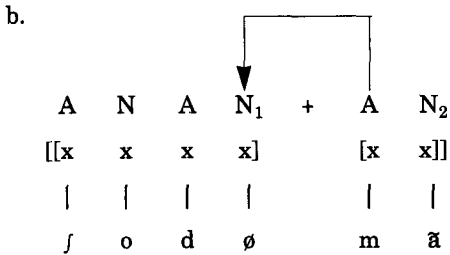
$$\begin{array}{cccccccccccc}
 (17) & A & N & A & N & + & A & N & A & N & A & N \\
 & [[x & x & x & x]] & & [x & x & x & x & x & x]] \\
 & | & | & | & | & & | & | & | & | & | & | \\
 & s & u & U^\circ & \emptyset & & R^\circ & \emptyset & t & \emptyset & r & a \\
 & & & | & & & | & & & & & \\
 & & & ?^\circ & & & h^\circ & & & & & \\
 & & & = & & & & & & & & \\
 & & & h^\circ & & & & & & & & \\
 & & & | & & & & & & & & \\
 & & & H^- & & & & & & & &
 \end{array}$$

(17)에서 접두사 *sub*은 하나의 영역을 이루게 되므로 어말 빈 핵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segment p*는 그의 *élément h°*와 *H⁻*를 잃고 약화되므로 뒤이어 오는 *segment s*와의 *gouvernement transsyllabique* 관계를 이루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불어에서 관련 *charme neutre*인 *segment s*가 지배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4)-iv의 예들은 형용사와 부사 접미어가 합하여 하나의 부사를 이루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둘은 연쇄의 가능성이 다르므로 적정 지배의 적용 여부 또한 달라지게 된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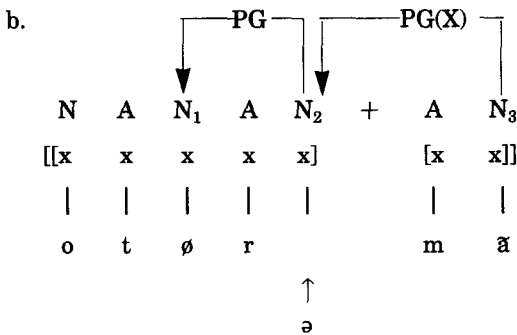
(18) i. **chaudement**

a. $\text{adv}_{\text{adj}}[\text{[od]}] + \text{suf}[\text{mã}]$



ii. **autrement**

a. $\text{adv}_{\text{adj}}[\text{[otRə]}] + \text{suf}[\text{mã}]$



(18)에서 **chaude**와 **autre**는 각각 내부 영역을 이루므로 어말 빈 핵을 갖게 된다. 그런데 (18)-i에서는 이 빈 핵이 어말 모음 N₂에 의해 적정 지배를 받으므로 용인을 받으나 (18)-ii에서는 적정 지배를 받지 않고 **schwa**가 삽입이 되어 앞의 N₁을 적정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파생의 차이점은 형태소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음 연쇄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즉(18)-i에서는 적정 지배를 받아도 2중 자음 연쇄 **dm**이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18)-ii에서는 적정 지배를 받게 되면 3중 자음 연쇄 **trm**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연쇄는 첫 segment t가 élément이 4개로 지금까지 논의에서 생각할 때 불어의 3중 자음 연쇄의 첫 segment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때 **schwa**의 삽입은 필수적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개의 형태소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19)의 예에서 적정 지배와 **schwa**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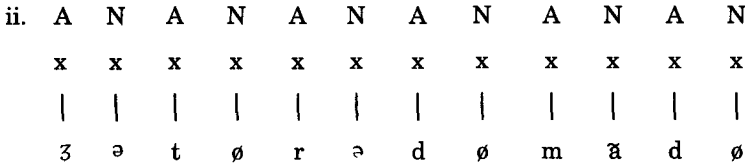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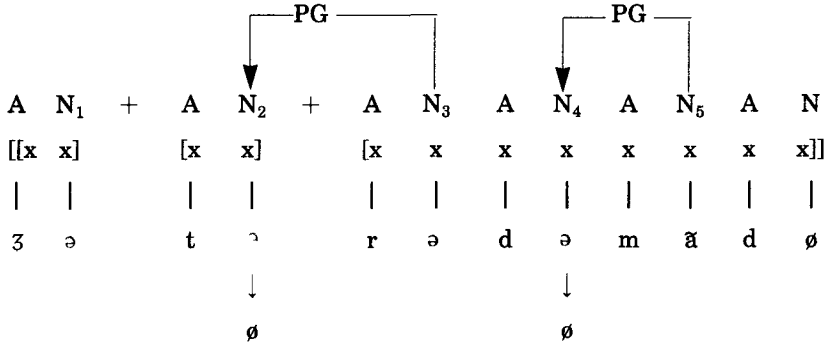
(19) # **Je te redemande...** #

(19)의 예는 여러 개의 단어가 연속되어 내부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tête**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모음 *segment*는 오직 하나인 예이다.²¹⁾ 편의상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생략하였다.

(19)의 예는 내부구조 상으로 볼 때 내부영역이 다양하여 각각 속한 *cycle*이 달라서 파생의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 i.



(20)-i에서 먼저 N₅는 N₄를 적정 지배하여 *schwa*를 탈락 시킨다 따라서 N₃의 *schwa*는 그대로 남게 되고 N₂를 적정 지배하게 하여 N₂의 *schwa*를 탈락시킨다. 그래서 (20)-i은 (20)-ii가 된다.

물론 (20)-i에서 *schwa*는 임의적이므로 N₁, N₃에 *schwa*가 삽입된다고 볼 수도 있다. (20)의 예는 적정 지배와 *schwa*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들은 상호모순적인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적정 지배가 이루어지면 *schwa*는 존재할 수 없고 역으로 *schwa*가 삽입되는 환경에서는 적정 지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의 논의를 마치며 여기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다음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1) *schwa*는 음운론적 영역의 tête가 될 수 없음을 4장에서 논의했다

Bibliographie

- Charette, Monik(1988), *Some constraints on governing relations in phonology*, Ph. D.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 Charette, Monik(1989), "The minimality condition in phonology", *The journal of linguistics* n° 25: 159-187.
- Harris, John(1988), "A government-based analysis of lenition" *Paper presented at Generative Phonology Workshop*. University of Leiden.
- Harris, John(1990), "Segmental complexity and phonological government", *Phonology* 7: 255-300.
- Hérault, Georges(1989), "Propagation et gouvernement: Etude d'un cas de palatalisation en Aizi", *Afrique et langage*: n° 26: 5-16.
- Hérault, Georges(1989), "Les rections syllabiques en soninke", *Linguistique Africaine*: n° 3:43-90.
- Kaye, Jonathan(1989a), "Government in phonology: The case of Morrocan Arabic", *The linguistic review* n° 6: 131-160.
- Kaye, Jonathan(1989b), "Coda licensing", Ms. SOAS-University of London.
- Kaye, Jonathan(1992), "Derivations and Interfaces", *Phonologie Yearbook*: 90-126.
- Kaye, Jonathan & Jean Lowenstamm(1981), "Syllable structure and markedness theory", In *Celleti. Brandi & Rizzi*: 287-316.
- Kaye, Jonathan & Jean Lowenstamm(1984), "De la syllabacité", In Dell, D. Hirst & J. R. Vergnaud(eds.), *Forme sonore du langage*, Paris: Herman.
- Kaye, Jonathan & Jean Lowenstamm(1986), "Compensatory lengthening in Tiberian Hebrew", *Wetzel & Sezer(eds.)*: 97-132.
- Kaye, Jonathan, Jean Lowenstamm & Jean-Roger Vergnaud(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In *Phonology Yearbook* Vol. 2: 305-328.
- Kaye, Jonathan, Jean Lowenstamm & Jean-Roger Bergnaud(1987), "Constituent structure and government in phonology", *Paper presented at GLOW meeting*, Venise.
- Shohei, Yoshida(1990), *Some aspects of governing relations in Japanese phonolog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Résumé》

Gouvernement propre et schwa en français

CHANG Chae-Seong

La présent étude porte sur la structure interne de la séquence triconsonantique du français. Dans le cadre d'une théorie de la phonologie du gouvernement, nous supposons que le français n'a pas l'attaque branchante, qui empêche l'unité structurale des segments du français. Cela veut dire que nous n'admettons pas le gouvernement syllabique en français.

En effet la structure interne de la séquence des trois segments consonantiques exclut la possibilité du gouvernement syllabique.

Si nous l'admettons dans la structure interne de la séquence des trois segments consonantiques, nous ne pouvons pas obtenir l'unité structurale parce qu'elle présente de nombreuses situations.

Par conséquent, le schwa s'introduit nécessairement dans la structure interne de la séquence des segments consonantiques.

La présence du schwa signifie qu'il doit y avoir le gouvernement propre dans ce domaine. D'après la relation entre le gouvernement propre et le schwa, nous pouvons conclure que la structure interne de la séquence des segments consonantiques est la structure pseudo-séquence qui exclut le gouvernement syllabique.

. Sur les problèmes qui ne sont pas résolus par ce travail un examen plus approfondi serait nécessaire.